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9

# 몸·정신이 조화 이뤄야 신심 생겨

**[원문]**  
천금지석산위침(天龕地席山爲枕)  
운병월촉해작준(雲屏月燭海作褥)  
거연대취잉기무(據然大醉仍起舞)  
각협장수괘곤륜(却嫌長袖掛崑崙)  
-진봉산 망해사 낙서전

**[번역]**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로다  
달은 솜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솜동이라  
잔뜩 취해 한바탕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저어하노라

**[산해(禪解)]**  
대한불교조계종 원로의원으로서 새해를 맞이하는 의미는 남다르다. 지난해 우리 불교계는 총무원장 선거 등 안팎으로 참 많은 일을 치렀다. 지금 불교계의 미래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 교육과 포교이다. 이는 얼마 전 법전 종정 예하께서 종문(宗門)의 양대 화두로 삼아 함께 정진하라는 교시(敎示)이기도 하다. 돌이켜 보면, 교육과 포교는 결코 빼 놓을 수 없는 과제이다. 불교정화 운동의 선구자인 금오 스님이나 청담 스님 등도 중시한 것이 도제양성과 포교였다. 이 중에서 교육은 부처님의 제자를 길러 내는 데 없어서는 안 될 필수 불가결한 것이며, 뛰어난 불교 학자를 양성하는 데 필요하다. 포교 역시 한국불교의 미래를 위해서 매우 중요하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강한 신심이 있어야만 한다.

신심은 몸과 정신이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만 생긴다. 믿음이 허약한 사람은 아주 사소한 일에도 마음이 흔들려 온전히 이 세상을 버리고 살아갈 수 없다. 비단 이는 불자들뿐만이 아니라 승가(僧家)에 몸을 담은 모든 출가자들에게도 해당 된다. 불교의 미래는 교육과 포교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600여년의 유구한 역사를 가진 한국불교는 옛날부터 우리 백성들의 마음을 움직이게 한 민족 종교였다. 하지만, 현재는 다종교 다문화 다민족의 세계에 들어선 민족 종교라는 것이 무색하다. 이미 교육과 포교의 허점으로 인해 많은 불교인들을 잃었으며 새로운 패러다임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희망은 없지 않다. 사찰 템플스테이에 참석하는 사람이 늘고 있으며, 3년 전 시작한 '선

목 해자 스님의 마음으로 찾아가는 108산사 순례 기도회'의 힘도 결코 빼 놓을 수 없다. 이러한 것도 한국불교 발전을 위한 포교의 절대적인 성과라고 할 수 있다. 이런 우리 불교계도 열려 있어야 한다. 사찰에서도 스님과 신도, 큰 스님과 제자, 모든 이들이 마음을 열어 소통하고 조화를 이루어야만 하는 시대가 도래한 것이다. 이런 불교는 더 이상 구복(舊福) 형태의 신앙이 되어서도 안 된다.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고 다름을 넓히고, 낮은 곳과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지난 해 연말, 크리스마스 때 서울역에서 구세군과 선목 해자 스님이 선행 보시를 하는 것을 TV뉴스를 통해 보았다. 새로운 형태의 따뜻한 종교적 화합의 장을 보는 것 같아 마음이 흐뭇하였다. 더욱이 불자들이 날마다 일백 원 씩, 선행 보시금을 모아 어려운 이들을 돕고 있다. 한국을 대표하는 코미디언으로 국민의 사랑을 받아오다가 사업실패로 인해 병원비조차 제대로 못내는 등 큰 어려움을 겪어오고 있는 배삼룡 씨와 병신춤으로 서민들을 울리고 웃긴 공옥진 여사의 치료비에 보태었다고 한다. 이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시는 선행보

영희(靈熙), 영조(靈照) 라는 수도자들이었다. 해가 저물었으나 비는 개지 않고 계속 내려 부득이 이곳 구무원의 신세를 지기로 하고 행장을 풀었다. 그날 밤 구무원의 집에는 큰 경사가 났다. 말을 못하던 묘화가 갑자기 말을 하기 시작하였던 것이다. '부설 스님과 소녀는 전생에도 인연이 있었고 금생에도 인연이 있으니 인과를 따르는 것이 바로 불법이 라 하겠습니다. 소녀 삼생연분(三生緣分)을 이제야 아꼈을 처유하고 다름을 넓히고, 낮은 곳과 약한 사람들을 보살피는 종교가 되어야 한다. '이 이야기를 들은 부설은 묘화를 어찌 할 수가 없었다. 자신도 자자자수(自作自受)와 인(因)으로 하여금 과(果)가 따른 법이며 자기를 만나기 위하여 생후 20년간 말을 안했던 묘화의 간청을 차마 뿌리칠 수 없어서 결국 두 도반(道伴)과 작별하였다. 영희, 영조 두 스님은 오대산(五臺山) 문수도량(文殊道場)으로 공부를 하러 떠나고 부설은 스스로 거사라 자칭하고 묘화의 집에 머물러 백년해로를 했다. 슬하에 1남 1녀를 두었는데 이들은 등운(登雲), 딸은 월명(月明)이다. 그 후 그는 서해백강(西海白江)변에 초리를 지으니 이곳이 바로 망해(望海)사이다.

서해 바다를 즐긴다는 뜻을 가지고 있는 낙서전은 1589년(선조 22)에 전라북도의 고승인 진묵 스님이 지은 것이라고 전해지고 있다. 1977년에 고쳐 지은 기록이 있고 1986년에 해체 복원을 하여 보존하고 있는 아름다운 건물이다. 정면 3칸, 측면 3칸의 주심포 형식에 맞배지붕으로 지은 'ㄱ'자형 목조기와집으로 작지만 안온한 분위기를 지니 그 경취를 더한다. 낙서전의 주련은 진묵 대사가 읊은 계승으로 유명하다.

'천금지석산위침 운병월촉해작준 : 하늘은 이불, 땅은 자리, 산은 베개로다. 달은 솜불, 구름은 병풍, 바다는 솜동이다. '거연대취잉기무 각협장수괘곤륜: 잔뜩 취해 한바탕 일어나 춤을 추니 긴 소매자락 곤륜산에 걸릴까 저어하노라.

진묵 대사는 27세인 이곳에 와서 이 계승을 읊고 낙서전을 지었다고 한다. 당시는 임진왜란 때였다. 그는 서산 대사가 73세의 노구를 이끌고 전장에 나간 것을 두고 '권세와 명리를 좇은 권승(權僧)이요 명리승(名利僧)이라 힐난했다고 한다. 하지만 그는 정좌 죽음을 앞두고서는 '나는 서산의 제자'라 했다고 초의 선사(초의)의 <진묵대사유적고>는 전한다. 이 계승을 보면 그의 자유자재한 성품이 한눈에 보이는 듯하다. 어쩌면 이 땅의 수행자들이 한번쯤 가슴에 담고 읽어 보아야 할 계승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4

# 무명이 삼독(三毒)의 뿌리

[원문]

又問曰 上說眞如佛性 一切功德 因覺爲根 未審無明之心 一切諸惡 以何爲根 答曰 無明之心 雖有八萬四千煩惱情欲 恒沙衆惡 無量無邊 取要言之 皆因三毒 以爲根本 其三毒者 卽貪瞋癡也 此三毒心 自然本來具有一切諸惡 猶如大樹根 雖是一所生枝葉 其數無邊 彼三毒根 一根本 生諸惡業 百千萬億 倍過於前 不可爲喻 如是三毒 於一本體 自爲三毒 若應現六根 亦名六賊 六賊者卽六識也 由此六識 出入諸根 貪着萬境 然成惡業 障眞如體 故名六賊 一切衆生 由此三毒 及以六賊.

또 물었다. '위에서 말씀하신 진여불성(眞如佛性)의 모든 공덕은 깨침이 뿌리가 됨은 알았으나, 어떤 것이 무명의 마음과 모든 악의 근본(뿌리)이 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이에 달마 대사가 대답하였다. "무명의 마음이, 팔만사천의 번뇌와 정욕(정욕 여러 가지 욕망)이 있어서 향하의 모래수 같은 온갖 악이 한량 없고 끝이 없지만 오점만 말한다면 모두 삼독이 그 근본이 되느니라. 이 삼독이라는 것은 탐내고 성내고 어리석은 것이니라. 이 세 가지 나쁜 마음이 본래부터 일체의 악을 갖추고 있는데, 그것은 마치 큰 나무가 뿌리는 하나이지만 생겨나는 가지와 잎은 그 수가 끝이 없는 것과 같으니라. 삼독의 뿌리에서 하나 하나의 뿌리마다 온갖 악업을 생겨나게 하는 것은 앞서 말한 것보다 백천만배 배이므로 비유할 수가 없느니라. 이와 같이 삼독이 하나의 본체에서 삼독으로 있다가 육근에 응하여 나타남은 육적이라 하느니라. 육적이란 것은 곧 육식(肉食)이라. 육식(肉)·이·비·설·신·의 육근이 색·성·향·미·촉·법의 육경에 대하여 알음알이를 냄이 여러 감각 기관을 드러냄으로 인하여 온갖 경계에 빠져 자연히 나쁜 업을 만들며 진여의 바탕을 가리우기 때문에 육적(六賊)이라 하느니라."

[해설]  
나쁜 법의 원인은 탐, 치, 집 삼독(三毒)이랍니니다. 탐내는 마음, 성내는 마음, 어리석은 마음을 말하는데 어리석음이 가장 문제입니다. 어리석음 때문에 욕심을 내고 성을 내는 것이거든요. 어리석다는 것은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때때리고 집착하며 소유하고 싶은 욕심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에 속고 결국 자기가 본래 갖추고 있는

불성을 더럽히는 순간이예요. 점점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삼독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실상을 바로 보고 끊임없는 정진을 통해 무명을 밝음으로 전환시키는 데 있습니다.

삼독은 모든 악을 갖추고 있다고 했습니다. 탐심은 무지에서 오는 것인데 실상에서 보면 모든 경계가 다 끊어진 자리이기 때문에 내 것이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반야심경>에서는 '색즉공(色卽空)이요 공즉색(空卽色)이다' 라고 했습니다. 무지에서 일으킨 욕심은 진심을 일으켜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불안과 고통을 안겨 줍니다. 한번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면 우리의 마음은 우주와 같은 큰마음이기에 마음에 욕심의 뿌리는 끝이 없다는 얘깁니다. 허전한 마음을 채울 수가 없어요. 그러나 정진의 끈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외의 모든 것은 불성을 오염시키면서 고뇌에서 벗어날 수 없게 만든다는 얘깁니다.

달마 대사께서는 삼독의 파정을 큰 나무로 비유를 하셨습니다. 무지와 탐심이 성내는 마음을 일으키면 자신과 이 사회에 큰 악영향을 끼쳐 스스로 악의 구렁으로 떨어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고 합니다. 따라서 삼독심을 끊어만 자신과 이 사회를 탈출 수가 있습니다. 무지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끊임없는 정진 그리고 자신과의 싸움

에서 물러남이 없어야만 벗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다음 다음 하고 미루는 마음으로 인해 윤회의 굴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겁 전이나 지금의 나는 과연 누구입니까?

삼독은 무지에 의하여 일어나는 마음입니다. 일체 현상이 청정불성의,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을 모르고 무지의 눈을 통해 색(물질)을 보고 분별을 일으켜 탐심이 일어나며, 무지의 마음이 귀를 통해 소리를 듣고 분별을 일으켜 탐심이 일어나고, 무지의 마음이 코를 통해 냄새를 맡고 탐심을 일으키며, 무지의 마음이 몸을 통해 감각을 일으켜 욕심을 일으키며, 무지의 마음이 법(법)을 통해 분별함으로 인해 욕심을 일으켜 온갖 경계에 빠지며, 어리석은 마음은 탐심과 진심을 일으켜 청정 진여불성을 어렵게 만듭니다. 이리하여 마음이 여섯 가지 기관을 통해 육경(六境)에 끄달려 더욱 더 무지하게 하며 여섯 가지 기관이 마음을 어떻게 만들기 때문에 육적(六賊)이라 말합니다. 수행은 여섯 도적을 물리치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 정주 혜은사 주지



동성 스님 작 달마도

## 불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선행 베푸는 종교 모두가 낮은 곳·약한 사람들 보살피며 베풀어야

시가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불교는 마음을 깨끗하게 하고 몸으로 선행을 베푸는 실천적인 종교이다. 이런 절 안에서 목탁을 두드리고 열불판을 읊어서는 안 된다. 모든 대중이 진정으로 수행자의 마음으로 돌아가 스스로 자신을 닦아야 하며 또한 대중 포교를 위해 일선에 나서야 한다. 이것이 바로 불교계의 시대적 사명이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진봉산 망해사 낙서전(樂西院)이다. 바다를 바라보고 서 있는 절이라는 뜻을 가진 망해사는 이름만큼 아름다운 곳으로서 서해에 접해 멀리 고군산 열도를 바라보며 자리 잡고 있는데 비록 규모가 작지만 많은 사원을 안고 있다. 백제 642년(의자왕 2) 때 부설 거사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말로 유명한 인도의 유마 거사(維摩居士), 전 재산을 바다에 던져버리고 대바구니를 엮으며 살았던 중국의 방은 거사(龐遜居士, 740-808)와 함께 불교의 3대 거사로 꼽히는 인물이다. 하지만 그는 묘화라는 병어리 소녀 때문에 끝내 출가를 하지 못했다. 묘화의 나이 20세 되던 어느 봄날 먹장상을 입고 배낭을 맨 수도스님 세분이 탁발 걸음으로 이 마을에 당도하여 묘화의 집에 이르렀을 때 그곳에 내리기 시작한 소나기로 스님들은 가도 오도 못하고 머물게 되었다. 그분들이 바로 부설(浮屠),

##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입종공고

본 종 종정예하 석가산대종사께서는 31독립운동의 민족대표인 용성조사의 은, 법, 강, 율 상좌이며 11.3 광주 학생독립운동의 학생대표였던 봉암선사로 부터 유일하게 은, 법, 강, 율을 이어받은 상수제자이시며 가야산해인사와 금강산장안사의 양대 강맥을 전강한 대강백입니다.

또한 대운사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대한불교유맥의 원조인 조선불교종흥를 제6조인 용성조사로부터 유일하게 전계유원계법을 전수받은 제7조 봉암선사에게 제8조로 전계유원계법을 전수받은 대한불교유맥의 전통 계승자이시기도 하며 가산대종사께서는 특히 600여년전에 단절되었던 점찰참회법을 종흥에 모악산금산사, 팔공산동화사, 속리산법주사에 전수해 점찰종흥조가 되어 이 시대의 선지식이라 하셨습니다.

본 종 임원 종도 들은 종정예하 중심으로 전통법맥과 유맥을 잇고자 아래와 같이 종도 모집을 하고자 합니다.

- ◆ 본 종은 종정예하의 전통 법맥을 유지 계승하여 종도화합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시는 스님께서는 재적종단의 승납과법계를 인정하겠습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여 건당하실 스님께서는 법계증서를 제출 하시길 바랍니다.
- ◆ 본 종에 입종하시는 법사님과 불교대학 2년이상 수료하신 분의 법사 신청을 받습니다.
- ◆ 본 종에서는 개인사찰의 사유재산을 종법에 의거하여 일체 관여하지 않습니다. (사찰등록시 1년 분담금 없음)
- ◆ 본 종 종정예하 주대식에 동참해주신 각 종단 종정예하 및 총무원장 큰스님들께 지언으로 통하여 무한한 감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본 종도들은 세계로 뻗어가는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이 한국불교의 중흥에 앞장서서 불초의 원맥을 이어 나갈 것을 불타전에 기원 드립니다.

대각교단 대한불교전통조계종 임원 및 종도일동



석가래부족법제 77세 조선불교종흥을 제 8조 종정 예하 태화당 석가산 대종사

■ 종정예하주석사무실 : 충북 진천군 초평면 신희리 484 원운사 ■ 총무원 : 대구광역시 북구 읍내동1122번지 대승사 ■ 접수문의 : 053)325-5288, 053)325-0400 / 팩스 053)325-4848

##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開設 승정(宗師)학과 학인모집

본 원에서 제1기 승정(大宗師, 宗師) 風光教育을 실시하게 됨을 공고하며 교육기간 동안 정중히 모시겠습니다.

### 僧正學科

1. 僧正之 儀法(전법계승, 오도승, 등)
  2. 僧正之 法行(종사의 행위와, 등)
  3. 儀式之 法行(점안, 천도, 수계, 건당, 등)
  4. 僧正之 法物(불자, 여의, 무척, 주장자, 등)
  5. 点察悔法 傳授 (600年間 단절된 점찰법 再現)
  6. 宗務行政.
- 僧正學은 宗師가 지녀야 할 禪과 教와 儀式行政, 品行 등 高度의 法상을 宣揚하고자 하는데 있음.

1. 입학자격 : 각 종단 종정, 총무원장 및 대승정(대종사) 승정(종사)
2. 구비서류 : 본원 소정의 입학 신청서 1통, 법계증서본 1매, 사진 2매.  
※ 3개월 후 졸업시 종사법물 증정 및 졸업장 수여.  
※ 법계증 없는 분은 각 종단 총무원장 발행 재직증명서 1통

- ▶ 수강기간 : 3개월 기간 중 5회만 실시(1일 5시간 교육)
- ▶ 개강일시 : 불기 2554년 1월 21일 오전 10시 30분.  
개원 입교식 및 1차 교육 (항시 점심공양제공)
- ▶ 수강장소 : 충북 청주시 흥덕구 비하동 594번지 대각교단 승가대학원 중앙연수원 ☎ 043)233-0924
- ▶ 접수처 : ☎ 053)325-5288, 053)325-0400 대승사 불교대학 팩스 053)325-4848, 핸드폰 010-3900-3050

大覺教團 僧伽大學院 院長 圓堂 大宗師